

『학습부진에 대한 재정의(redefinition) 및 이에 따른 실태파악』 연구

김 태 균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학습부진은 학습동기가 낮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학습부진에 대한 국가, 지역, 학교 차원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교육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학습부진의 문제를 교육복지와 교육소외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표준화된 시험에 따라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학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증가해왔다. 1997년에는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책임지는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였고, 2009년 기초학력책임제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는 등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과 단위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학습부진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제도의 문제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라는 제도는 이에 대응하지 못한 채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과정, 수업시수만 이수하면 진급하고 졸업하는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방과후 문제풀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유급제도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40%~60%의 성취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부진을 바라보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고, 학교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학습부진을 ‘성취목표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초학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실제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의 규모와 그 추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학습부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또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외 주요국의 평정체계

가. 미국

미국 내에서의 학교 성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5개 등급(A, B, C, D, E/F)의 형태를 취하며, E/F가 낙제, 즉 최하점을 나타낸다. 이를 기초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수의 총체적 비율에 기초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김성숙 외, 2011).

등급	비율
A	90-100%
B	80-89%
C	70-79%
D	60-69%
E/F	59% 이하

미국에는 재이수제도가 있어 E/F를 받는 경우 그 교과를 재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평균 D 이상을 요구한다.

나. 핀란드

핀란드 종합학교의 경우 4-10점 척도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이 중에서 4점은 실패(fail)를 의미하며, 각 척도에 대한 의미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	등급 의미	비고
10점	excellent	상위 5%를 나타냄
9점	very good	
8점	good	
7점	satisfactory	최빈값
6점	fair	
5점	passable	
4점	fail	

이처럼 핀란드의 경우도 4점을 받은 경우 이수에 실패한 교과로 보고 재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김성숙 외, 2011).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등과정은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따라 특별과정, 속성과정, 보통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그 중등학교의 평정체계는 아래와 같다.

특별과정과 속성과정		보통과정 인문계		보통과정 실업계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A1	75% 이상	1	75% 이상	A	75% 이상
A2	70-74%	2	70-74%	B	70-74%
B3	65-69%	3	65-69%	C	60-69%
B4	60-64%	4	60-64%	D	50-59%
C5	55-59%	5	50-59%	U	50% 미만
C6	50-54%	U	50% 미만		
D7	45-49%	U: Failed			
E8	40-44%				
F9	40% 미만				
D7, E8, F9: Failed					

이처럼 싱가포르도 재이수의 기준을 5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김성숙 외, 20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주요국들은 학생들이 40~60% 미만의 성취를 보일 경우 해당 교과를 재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과 같은 재이수제도가 없는 한국의 경우, 출석일수만 채우면 진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부진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도 재이수제도의 도입이 당장은 어려우므로 학습부진을 외국처럼 성취목표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기초학력보장정책 전개과정

한국은 1997년부터 학습부진에 관심을 갖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제도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정책 시기	주요 정책 내용
정책 도입기 (1997~2007년)	- 1997년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단위학교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시행
	- 1997년 초·중등 교육법 제9조, 국가수준 학교평가 및 학생평가의 법적 조항 마련
	- 1999년 7월 기초학력책임지도 시행 기본계획 수립

	- 2000년 표본조사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법적 기반 구축 (2007~2008년)	-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법률 제8492호) 제정
	- 2008년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정
	- 2008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
정책 정착기 (2009~2012년)	- 2008년 전수조사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 2009년 6월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11년 ‘학습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정서행동발달 장애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 2011년 잔류학교 및 경계선 학교 지원
	-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정책 정비기 (2013년~)	- 기초튼튼행복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수준 검사 전면 철회

자료: 송경오 외, 2015; 김경희 외, 2013;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제로 2000년 도입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평가를 통해 교과별·영역별 부진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학업부진을 최소화 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학력격차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실효성이 있었던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의 시선이 필요하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위의 표와 같이 진행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현재의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며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그 정책의 초점이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는 것에 치우치면서 정책이 그 본질을 잃고 왜곡된 것이다.

3.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주요 내용

기초학력보장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국가수준 평가에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쓰기, 수학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기초학습부진으로 분류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표집), 과학(표집)과목을 평가하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

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2010년에 고등학교 평가 대상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의 평가가 폐지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평가 대상교과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에서 2010년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로 축소되었다.

학년	교과	평가 범위	시간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중 1~2학년 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교과별 60분
	사회, 과학 (표집평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고 1학년 전 과정	교과별 60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그 성취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4단계로 구분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평가가 전수조사로 실시되고, 그 결과가 일반에게 공개됨에 따라 이러한 성취수준에 기반을 둔 학생의 비율 자체가 학교 및 지역 차원에서 교육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은 학교,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습부진정책’의 목표 및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과 성과가 지나치게 연관을 갖게 되면서 미달비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초학력 미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을 잘보는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 이처럼 평가결과를 통해 교수법들에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로 평가에 교수법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성취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도달도(%)	개별 성취수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해한 수준 (80% 이상)	우수학력	보통학력 이상
교육과정을 상당부분 이해한 수준 (50% 이상 ~ 80% 미만)	보통학력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수준 (20% 이상 ~ 50% 미만)	기초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 (20% 미만)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미달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1.21.)

이러한 성취기준 및 그 활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학습부진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고, 정책 기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학습부진 정책은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취기준의 20%를 넘도록 하는데 모든 지원과 자원을 집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간과되고,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치 경쟁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둘째, 그로 인해 초래되는 더 큰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다른 학생들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부진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비록 정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학년 수업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역시 해당 학년의 수업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급 학년,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학습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이 유급제도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40%에서 60%까지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현재 20%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취기준으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학습부진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예컨대, 싱가포르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성취기준을 구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50%를 최소성취기준으로 하고, 6학년까지는 20%를 최소성취기준으로 하되 초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시험인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를 봐서 유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김성숙, 2011). 우리나라 역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및 목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4.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념 정의

가. 학습부진 개념을 학업저성취와 연계

- 학습부진이란 정상적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으면서도 환경 요인,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학습습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에 설정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의미한다(김수동 외, 1998).
- 학습부진이란 학습능력은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나 인지능력 이외의 개인적인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부족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를 뜻한다(이대식·황매향, 2011).

나.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아래의 일반적 특징이 존재(김선 외, 2011)

첫째, 학습부진의 발생 원인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둔다.

둘째, 학업성취와의 비교준거를 지적 능력(주로 지능지수)에 두고 있다.

셋째, 학습부진의 원인을 정보처리의 결함, 뇌손상과 같은 개인 내적인 원인보다는 누적적 학습결손, 학습전략과 같은 교수-학습환경에 두고 있다.

넷째, 주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 명칭별 선별 방법

학습부진 명칭	학습부진 판별 검사
기초학습부진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확인. 응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일정 점수 미만인 학생 선별.
교과학습부진	초등학교 2~6학년 대상으로 매 학년도 초기에 이전 학년의 최소 도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별. 응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일정 점수 미만인 학생 선별.
기초학력 미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에서 성취목표의 20% 미만 도달 학생.

자료: 경기도교육연구원(2013)

이처럼 학습부진이란 용어는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널리 시행되면서부터 학습부진이 학업성취가 낮은, 즉 기초학력 미달의 개념으로 주로 인식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특히 성취목표의 20% 미만 도달 학생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만 특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점은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습부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성취목표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초학력까지를 학습부진으로 보는 개념)을 사용하여 학교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수준이 성취목표의 50% 미만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따라가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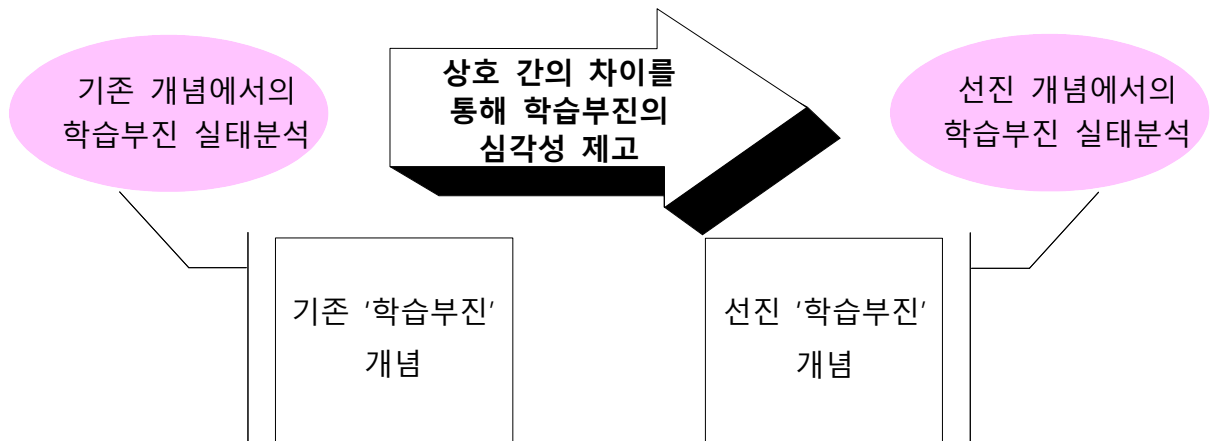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새로운 ‘학습부진’의 기준 마련: 각 학교급별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초학력 기준점을 기초학력 미달이 아닌 기초학력으로 상향조정하여 아래의 문제를 살펴본

다.

- 1) 기초학력 미달 및 기초학력에 따른 비율은 학교급별, 과목별로 3년간 (2011~2013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 2) 기초학력 이하의 학생 비율에 학교특성별, 지역특성별 요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지역수준의 변인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본다.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소개

기초학력 이하 학생들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인은 각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기초학력 이하 학생 비율이고, 독립변인은 학교특성, 지역특성 등이다.

관련 데이터는 2011~2013년에 해당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초중고 전체 데이터에서 아래 표에 있는 독립변수에 따라 10% 비율로 층화추출한 것이다.

변수명			변수설명
독립 변수	학교특성	학교설립유형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
		고등학교유형	학교유형의 구분 (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학교성별	남/여/남녀공학의 구분
	지역특성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 구분

종속 변수	초·중·고 학생의 2011년~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성취수준이 기초학력 이하인 학생의 비율 (국어, 영어, 수학)
----------	---	--

IV. 연구결과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기초학력 이하 학생 현황’과 ‘기초학력 이하 학생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기초학력 이하 학생 현황

가. 초등학교

		학생수(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 어	기초학력 미달	14,456(2.3)	7,467(1.2)	3,757(0.6)	3,154(0.6)
	기초학력	112,026(17.6)	120,509(20.2)	95,961(16.4)	87,062(16.4)
	계	126,482(19.9)	127,976(21.4)	99,718(17.0)	90,216(17.0)
수 학	기초학력 미달	8,228(1.3)	7,144(1.5)	6,102(1.0)	5,436(0.9)
	기초학력	71,680(11.2)	135,383(24.7)	110,650(18.9)	113,410(19.2)
	계	79,908(12.5)	142,527(26.2)	116,752(19.9)	118,864(20.1)
영 어	기초학력 미달	11,495(1.8)	12,809(2.1)	4,134(0.7)	4,792(0.8)
	기초학력	88,091(13.8)	88,958(14.7)	63,655(10.9)	53,047(9.0)
	계	99,586(15.6)	101,767(16.8)	67,789(11.6)	57,839(9.8)

*기초학력 이하비율은 학교급별 학생 수를 확인하여 재산정함

자료: 2009~2012년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과보고서
(초등학교는 2013년 전수 평가를 폐지하여 2013년부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가 없음)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국어 17.0%, 수학 20.1%, 영어 9.8%로 평균 15.7%에 이른다. 과목별로는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수학교과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학습부진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각각 0.6%, 0.9%, 0.8%에 해당하며, 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에는 해당하지 않아 학교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 제시된 학생 수는 평가대상인 6학년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초등학교 전체로 생각하면 그 숫자는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초학력 이하의 학생 비율은 매년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수학의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은 오히려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12.5→20.1%). 그 원인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어 현재는 초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었다.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평가의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나. 중고등학교

□ 연도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 분석 대상

학교급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3,083	660,010	3,102	635,026	3,155	625,495	3,169	594,809
고등학교	1,463	476,815	1,489	476,613	1,533	479,490	1,587	470,276

1) 중학교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중학교	국어	23.7	3.2	17.2	1.4	15.2	1.0	12.6	1.2
	수학	34.6	6.1	31.5	4.0	29.8	3.4	28.5	5.1
	영어	28.3	3.9	28.0	1.3	23.9	2.2	21.7	3.3

자료: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과보고서

중학교의 기초학력 이하 학생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국어 13.8%, 수학 33.6%, 영어 25.0%이다. 과목별로는 수학, 영어, 국어의 순으로 여전히 수학교과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흥미로운 점은 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다. 초등에서는 영어보다 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 중학교에 와서는 국어보다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결하는 영어 교과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이하 비율이 33.6%로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수업의 50%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교실에 앉아만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에서의 이런

상황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2) 고등학교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고등 학교	국어	20.5	3.9	12.9	2.0	14.4	2.1	13.5	2.8
	수학	22.2	4.3	14.8	4.4	14.6	4.3	10.2	4.5
	영어	32.0	3.7	13.0	3.6	13.2	2.6	12.1	2.7

자료: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과보고서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이하 학생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국어 16.3%, 수학 14.7%, 영어 14.8%로 수학, 영어교과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과 영어 교과가 위계적인 학문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부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한 원인을 심층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기초학력 이하 학생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초등학교 (2011~2012년)

	2011년				
국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31.132		3.816	.023	.013
지역규모	.558	.065			
학교설립유형	-15.627	-.097			
	2012년				
상수	30.061		1.805	.165	.006
지역규모	-.120	-.013			
학교설립유형	-12.897	-.075			

	2011년				
수학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39.589		2.431	.089	.008
지역규모	-.123	-.011			
학교설립유형	-17.986	-.088			
	2012년				
상수	32.358		.725	.485	.002
지역규모	-.154	-.013			
학교설립유형	-10.127	-.046			

	2011년				
영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26.560		4.987	.007	.016
지역규모	-.896	-.105			
학교설립유형	-10.207	-.064			
	2012년				
상수	23.491		2.956	.053	.010
지역규모	-.644	-.075			
학교설립유형	-9.469	-.059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기초학력 이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학 등에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규모와 학교설립유형이 있었다. 국어교과에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은 지역규모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했다(임천순 외, 2011; 정동욱 외, 2011).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국수영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낮았다.

나. 중학교 (2011~2013년)

	2011년				
국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33.659		24.817	.000	.152
지역규모	-.522	-.067			
학교성별	-3.141	-.368			
학교설립유형	-2.652	-.119			
	2012년				
상수	26.140		12.573	.000	.083
지역규모	-.385	-.048			
학교성별	-2.535	-.284			
학교설립유형	-.474	-.020			
	2013년				
상수	26.508		15.157	.000	.097
지역규모	-.826	-.108			
학교성별	-2.478	-.292			
학교설립유형	-1.079	-.049			

	2011년				
수학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60.691		18.747	.000	.119
지역규모	-4.338	-.334			
학교성별	-.710	-.050			
학교설립유형	-2.765	-.074			
	2012년				
상수	53.735		12.879	.000	.085
지역규모	-3.503	-.280			
학교성별	-.294	-.021			
학교설립유형	-2.804	-.078			
	2013년				
상수	57.433		12.451	.000	.081
지역규모	-3.380	-.255			
학교성별	-.794	-.054			
학교설립유형	-4.546	-.119			

	2011년				
영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54.802		16.498	.000	.106
지역규모	-2.607	-.218			
학교성별	-2.964	-.224			
학교설립유형	-3.558	-.103			
	2012년				
상수	50.915		12.943	.000	.085
지역규모	-2.467	-.200			
학교성별	-2.064	-.152			
학교설립유형	-5.584	-.158			
	2013년				
상수	45.057		10.462	.000	.069
지역규모	-1.348	-.114			
학교성별	-2.730	-.208			
학교설립유형	-4.136	-.122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의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규모와 학교성별, 학교설립유형 세 요인 모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지역규모가 읍면도시, 중소도시, 대도시로 커질수록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은 낮아졌는데, 이는 지역규모가 중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김소영 외, 2011; 임천순 외, 2011). 그리고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낮아졌

는데, 이는 이 토래에는 남학생의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기초학력 이하의 학생비율이 더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수한 사립중학교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고등학교 (2011~2013년)

	2011년				
국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96.623		93.675	.000	.446
지역규모	-3.697	-.165			
학교성별	-2.315	-.115			
고등학교유형	-.902	-.637			
학교설립유형	-4.236	-.079			
	2012년				
상수	57.810		7.427	.000	.081
지역규모	-3.149	-.191			
학교성별	-1.671	-.114			
고등학교유형	-.314	-.126			
학교설립유형	-3.444	-.088			
	2013년				
상수	61.526		9.833	.000	.105
지역규모	-3.261	-.201			
학교성별	-1.889	-.131			
고등학교유형	-.397	-.176			
학교설립유형	-2.815	-.073			

	2011년				
수학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96.577		75.533	.000	.393
지역규모	-3.472	-.140			
학교성별	.799	.036			
고등학교유형	-.936	-.597			
학교설립유형	-5.366	-.090			
	2012년				
상수	50.459		3.661	.006	.042
지역규모	-3.111	-.160			
학교성별	.293	.017			
고등학교유형	-.244	-.084			
학교설립유형	-2.572	-.056			
	2013년				
상수	35.973		4.497	.001	.051
지역규모	-2.658	-.189			
학교성별	.363	.029			
고등학교유형	-.154	-.079			
학교설립유형	-1.290	-.039			

	2011년				
영어	B	β	F	유의확률	R^2
상수	99.213		86.523	.000	.426
지역규모	-3.688	-.161			
학교성별	-1.483	-.072			
고등학교유형	-.896	-.620			
학교설립유형	-6.098	-.111			
	2012년				
상수	60.933		8.344	.000	.090
지역규모	-3.395	-.204			
학교성별	-1.471	-.099			
고등학교유형	-.362	-.144			
학교설립유형	-3.604	-.091			
	2013년				
상수	53.824		7.523	.000	.082
지역규모	-3.507	-.212			
학교성별	-.634	-.043			
고등학교유형	-.306	-.133			
학교설립유형	-3.254	-.083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의 기초학력 이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학교에서와 같이 지역규모, 학교성별, 학교설립유형이 있었으며, 이외에 고등학교유형(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이 추가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든 과목에 걸쳐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낮았다. 사립학교에 명문고 및 많은 외고, 과학고 등이 몰려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유형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순으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낮았다. 여기 특목고에는 체육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낮다는 점은 그만큼 학교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교 간의 격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특이한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든 국수영 과목에서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 순으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점차 낮아진 점과 다르게 수학교과에서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고등학교 수학교과목의 경우 반대로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순으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학력 미달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과 기초학력을 합친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학생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이하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지

역수준의 변인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SES, Social Economic Status)’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가 가진 매우 큰 한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인 학생들의 가정배경 요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력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그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그로 인해 정책대상의 범주가 협소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협소한 범주로 인해 낙인효과는 커지게 되어, 실제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지게 된다(백병부,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학습부진을 기초학력 이하(성취목표 50% 미달)의 학생으로 봐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가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결과만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거나 혹은 아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편법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평가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방안 (2010. 3).
- 김경희 외(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교 학업성취 격차. 교육평가연구, 26(2), 297-317.
- 김선 외(2011). 학습부진아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 김성숙 외(2011). 중·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재이수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영 외(2014).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 분석 -기초학력 및 기초학력미달자를 중심으로-.
- 송경오 외(2015).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비교분석 : 책무성전략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5(1), 36-68.
- 시기자 외(201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인지적·정의적 특성 및 변화 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화진 외(2009). 학습부진 학생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학습부진 학생지도·지원 종합 계획(안)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혜정 외(2013). 경기도 학습부진 학생 실태와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